

윤창호 “올해 26조 유동성 공급…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한국증권금융 신년 기자 간담회

금리인상기 안정적 자금운용처
자금 환류 위해 수신상품 다양화
대주재원 공급확대, 만기 연장 등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한국증권금융이 올해 26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공급해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투자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20일 윤창호 증권금융 사장은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의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증권금융은 올해 증권담보대출 및 할인어음(신용대출)을 통한 대(對)증권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사여신 18조6000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 대수 거래 7조7000억원 등 총 26조3000억원을 자본시장에 공급할 예정

이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2019년 18조9000억원 ▲2020년 21조5000억원 ▲2021년 26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윤창호 사장은 “금리 인상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투자업계에 안정적 자금 운용처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의 니즈에 맞도록 수신상품의 만기·금리 등을 다양화해서 자본시장 유입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환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당사 수탁서비스 강화를 통한 우수 사모펀드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의 중심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주서비스 개선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윤 사장은 “대주 재원 공급을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매도 시장에서의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했다”며 “지난해 오픈한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에는 현재 18개 증권사가 참여해 하루평균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파이낸싱·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는 주식·채권·파생시장 등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외연을 그린 파이낸싱, 가상자산 등

로 확대되고 있다”며 “녹색채권 인수지원·그린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 펀드투자 확대 등 그린파이낸싱 시장형성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나 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 등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말까지 전체 운용 자산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증권금융은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지지선언에 참여하여 ESG 및 녹색금융 실천에 나섰다”며, 여신·투자 집행 시 ESG 관련요소를 반영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작년 해외주식 보관·결제금액 ‘역대 최대’

테슬라·애플·엔비디아·MS 등 상위 종목 美 주식 44.4% 차지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05억9000만달러로, 결제금액은 연간 기준 490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의 경우 최근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화주식은 779억1000만달러로 전년 말(470억8000만달러) 대비 65.5% 증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226억8000만달러로 전년 말(251억4000만달러) 대비 9.8%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나스닥 대형주와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에 해당하는 미국 주식의 보관금액(346억달러)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779억1000만달러)의 44.4%를 차지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지난해 연간 기준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4907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233억9000만달러) 대비 51.7%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3984억7000만달러로 전년(1983억2000만달러) 대비 100.9% 증

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922억4000만달러로 전년(1250억7000만달러) 대비 26.2% 줄었다.

해외시장별 결제금액은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77.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위5개 시장(미국·유로시장·홍콩·중국·일본)이 전체 결제금액의 99.3%를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규모의 92.9%를 차지했고, 전년(1781억50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때 107.7% 증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애플,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셰어즈 순으로 나스닥 대형주와 레버리지 ETF 등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박미경 기자

KB證, 맞춤형 투자정보 ‘리봇웹’ 서비스

챗봇 플랫폼 SNS서 웹으로 확장
손쉬운 구성·키워드 검색 고도화

KB증권이 사용자 맞춤형 리서치 챗봇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구현하는 ‘KB리봇웹(WEB)’ 서비스를 선보인다.

‘KB리봇웹’ 서비스는 챗봇 서비스 플랫폼을 SNS에서 웹으로 확장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했다. 웹 기반 챗봇은 사용할 때마다 앱을 열어야 하는 모바일 기반 챗봇과 달리 PC 화면에 상시 띄워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증권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텔레그램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리서치 챗봇 ‘리봇’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봇은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보고서, 실시간 주가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 주식

투자 및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투자정보 서비스 툴이다.

KB증권의 리봇과 리봇WEB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관심 있는 자산과 국가, 업종, 자료의 종류 등을 설정하면 리포트가 발간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연관된 리포트에 대한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손쉬운 메뉴 구성과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도 고도화했다. 리포트나 종목 현재가에 대한 단독 검색 기능과 더불어 통합검색 옵션을 제공해 종목명이나 키워드 입력을 통해 시세 또는 리포트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 임차인 모집

아파트 752가구, 근린생활 20실
전용 15~42㎡, 남영역 150m 위치

롯데건설은 오는 2월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의 아파트와 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롯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도심형 주거브랜드인 ‘루미니’가 적용되는 단지다. 아파트 752가구와 20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주 임차 연령인 20·30 세대에 걸맞는 주거 서비스와 설계 등을 갖춘 예정이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15㎡ A 14가구 ▲15㎡B 2가구 ▲33㎡ 188가구 ▲43㎡A 216가구 ▲43㎡B 45가구 등 5개 주택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150m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 이를 통해 종로 및 시청 등의 도심 업무지역까지 15분내 도달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약 1km 거리에 용산역 및 서울역 소공원, 문화,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효창공원, 용산전쟁기념관



롯데건설 ‘용산 원효 루미니’.

등의 녹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복층설계(전용면적 15A·15B), 웨어하우스 등 소형주택에 맞춘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 내 특화시설들이 대거 도입된다.

먼저 지상 3층에는 입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설계되며, 단지 내 최상층에 설계된 스카이라이프팅라운지를 통해 남산야경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헬스장, GX룸,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단지 내 1, 2층에는 20실의 근린생활 시설이 구성된다. 특히 ‘용산 원효 루미니’는 일반적인 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1·2인 가구의 감성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외관설계와 MD구성을 통해 고품격 테마상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국투자증권

ELW 313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워런트증권(ELW) 313종목(종목번호 57H001~57H313)을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74종목과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39종목이다.

ELW는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

는 권리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매매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래세도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지수 하락 예상되더라도 풋 ELW 매수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식과 달리 정해진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가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기 시 최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

파이썬 입문 과정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데이터 분석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파이썬 입문과 금융 모델링 실습’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이썬 입문과 금융 모델링 실습’은 오는 2월 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3월 8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금융 시장 분석, 투자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업 퀀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수강생은 금융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경 기자